

지역 매 아리

3·1운동 100주년 기념 부안군 선언대회 성료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회장 김갑곤)와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배)는 지난 1일 부안군청 앞 광장에서 새마을지회 회원과 봉사단체를 비롯한 및 부안군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기념 부안군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 권명식 협의회장은 3·1 독립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애국애족 정신을 이어받아 온 누리의 자유 평등을 지향하고 불의를 배격하며 사회동포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념축사에서 "의롭고 행복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 마음으로 똘똘한 선조들의 숭고한 3·1 정신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과거 100년을 가슴깊이 기억하면서, 우리 부안의 미래 100년을 위해 활기와 온정을 넘치는 고창, 사암이 모여드는 부안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기념독립선언문 낭독은 김영배 부안군자원봉사센터장이 낭독했고, 하순재 부녀회장의 선창으로 진행된 만세삼창으로 3·1운동의 뜻을 되새겼다. 의식행사 후에는 태극기를 휘날리며 풍물패와 함께 하는 가두행진을 하며 3·1운동 100주년을 군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그날의 함성' 생생히 재현

정읍시, 3·1 태인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성대'... 선열들의 숭고한 뜻 기려

100주년 3.1운동 태인독립만세운동 기념 행사가 지난 1일 태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정읍시와 태인청년회의소(회장 박민우)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태인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더욱 성대하고 뜻깊게 행사를 치렀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1000여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100년 전 나라를 되찾고자 뜨거웠던 그날의 역사를 재현했다.

시와 태인청년회의소는 선열들의 위업을 되새기고 독립운동의 정신인 자주·자강·화합·평화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켜 시민 통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규모를 확대해 개최했다. 시는 "독립운동 정신계승 발전은 물론 시민 대화합의 계기로 삼기에 충분했다"고 자랑했다.

이번 100주년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을 포함한 기관단체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JCI 회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태인 3.1 운동 기념탑



100주년 3.1운동 태인독립만세운동 기념 행사가 지난 1일 태인에서 열렸다.

참배 후, 태인 초등학교에서 태인 출신 애국지사 송영근의 후손인 가수 송대관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미독립선언서의 릴레이 낭독행사를 가졌다.

또 참석자 모두가 태극기를 손에 들고 태인 저자거리를 시가행진한 후 100년 전 태인독립만세운동 상황

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특히 전문교수의 시나리오에 따라 전북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3막극이 태인 초등학교, 태인 터미널, 장터사거리에서 진행돼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을 생생히 재현했다.

/정음=김대환기자

정읍시 술 산업협회 공식출범 지역특화 술 산업 육성 '기대'

정읍시 술 산업협회가 오는 4월 공식 창립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내 술 관련(전통주, 발효주 등) 종사자들과 관심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창립준비위원회를 모집한다. 협회 창립은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의 지역특화산업 육성분야 중 하나인 술 산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정보 교류와 의견을 모아 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전통주와 발효주로 유명한 지역 내의 술 관련 사업체와 소규모 주조장간 협업과 산업과 지원을 통해 기능이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잠재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창립 후에는 정읍시 술 산업 전반에 대해 산업화와 디자인, 컨설팅, 창업 지원 등과 관련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술 산업협회 창립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시청 도시재생과(063-539-5803)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음=김대환 기자

품격있는 역사문화 관광사업에 '탄력'

고창군, 12억원 들여 무장읍성 앞 지중화 추진

고창군 무장읍성 길의 지중화가 확정되면서 민선 7기 '품격있는 역사문화 관광사업'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고창군은 무장읍성에서 앞 450m구간(무장읍성→농협→무장시장 앞 회전교차로)에 대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무장읍성 주변에 얽혀있는 전선주와 전선들은 읍성 경관을 해치는 주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전선시장 주변 인도에 설치된 전선주로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군은 지난해 8월 한국전력공사에 올해년도 지중화 사업을 신청했고, 지난 1월 최종 대상으로 확정 됐다.

지중화사업은 기초조사와 실제설계를 거쳐 오는 5월 착공해 9월께 완료된다. 무장읍성 앞 지중화 사업은 총사업비만 12억원에 달한다. 지중화사업비로 한정과



고창군 무장읍성.

공사비용 5억원, 군비 5억원이 소요되며, 인도 정비 사업에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 등이 투입된다.

고창군은 한전 지중화 사업과 도로정비 등이 마무리되면 무장읍성과 전선시장을 잇는 길이 '길기 좋은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 관광개발팀 김미란 팀장은 "전선지중화사업 등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한반도 첫수도 고창만의 특색과 정체성을 살려 누구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태극기와 만세 소리로 뒤덮인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 3·1운동 기념식 열고 군청까지 독립만세운동 거리행진

지난 1일 고창군청 앞 크고 작은 태극기 수백 개가 거센 바람에 휘날리며 군청 광장을 가득 채웠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비롯해 각각각색의 군민 천여명이 한목소리로 대형 태극기를 바라보며, 태인독립만세를 외쳤다.

100여년 전 일제의 횡포에 맞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고창읍내는 또다시 필력이 태극기와 만세 소리로 뒤덮였다. 독립을 선언한 태극기 물결은 쉬지 않고 만세를 외치며 고창군청 광장까지 행진했다. 만세 소리가 함께 밀려올 때마다 거리에 선 군민 수천명은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1일 오전 10시 동리국악당에서 군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우리가 지킨 100년의 역사, 희망의 시작'을 열었다.

이날 조순임님의 고창독립운동가 유시남송으로 시작된 기념식에선 유기상군수의 기념사, 독립유공자 후손의 3.1운동 경과보고, 관내 청소년 대표 33명의 독립선언문 낭독, 3·1절 노래

제창,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의 만세삼창으로 진행됐다.

이후 두루마기와 한복, 교복 등 다채로운 복장으로 참여한 군민 1000여명이 읍내거리를 행진하며 100년 전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행진중에는 일본군사과 독립운동가의 대치 상황극도 진행됐다. 특히 거리의 주민과 상인들도 이들의 행렬에 동참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외쳐 장관을 이뤘다.

행사 마무리는 민족 대표 노래인 아리랑을 다함께 부르며, 의향 고창의 독립운동가들을 기렸다. 오후에는 동리국악당에서 '테마공연-봄 그리고 다시 봄'도 열려 비장했던 당시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은 일광 정시해 의사 등 73명의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정의로운 고창이다"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알리어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행복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정읍 만들 것"

김형근 복지환경국장, 6개과 1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상세히 소개

정읍시가 지난달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월 두 번째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김형근 복지환경국장이 국 관할 6개과 1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와 현안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국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읍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민선 7기 정읍시정은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포용하는, 시민이 행복한 부지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이후 추진계획을 브리핑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시민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복지행정실현에서는 ▲나랑사랑, 호국보훈 선양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행복한 홈-트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이 중점 추진된다.

제값도 높은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서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건강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이 중점 사업으로 소개됐다.

또한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구현에서는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과 구직 지원금 지급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사업이, 주민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역 만들기에서는 ▲정읍기네스 인증 시민공모 ▲구미동 벽화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응사업 ▲축산 약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특색있는 자연 친화적 생태·녹색도시에서는 ▲정읍천 꽃길 조성을 비롯해 특산임산물의 생산·가공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임산물 6차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읍문화의 자긍심 고취와 역사적 가치증진에서는 정읍 고유성을 지닌 자료들을 소장·제공하는 ▲중앙도서관 향토자료실 조성 사업도 소개했다.

김 국장은 "시민들과 함께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소개한 이들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환경이 쾌적하며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2월부터 월 둘째와 넷째 목요일에 시청 정례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정례 브리핑은 시청방향·역점시책·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음=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감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